수입 식음료 문호개방 가능성

방콕사무소

외국자본 유입 막아 경제낙후

• 미얀마는 반세기가 넘는 군사통치 기간을 종식시키고 2010년에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이와 함께 나라 경제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았으나, 외국자본의 유입이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정서로 인해 9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과 경제는 낙후되어 있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미얀마는 2014년 처음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어 그해 182위를 기록, 2015년 177위, 2016년 167위를 기록하는 등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2017~19년까지 171위로 제자리걸음이다.

• 미얀마 정부는 타개책 마련을 위해 전 국민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네트워크구축 관련 통신 법안을 마련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법안들도 마련중에 있다.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 몇몇 분야는 외국인들이 100% 지분을 가지는 것이 합법화되었지만, 아직 대다수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식음료 분야의 규제가 가장 높아

•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것이 식음료분야이며, 수입주류의 판매금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류업계와 정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일부 고급호텔과 면세점에서 수입주류 판매를 허용했으나 아직 대다수 주류 매장에서의 판매금지 조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 이에 일부 주류매장에서는 값싼 미얀마 위스키 뒤에 수입주류들을 숨겨놓고 지인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금지령 단속 이후 현지 가게들은 하루에 15%의 매출이 하락했다고 말하고 있다.

수입식품 개방잠재력 매우 큰 나라

• 아직은 미얀마의 경기 국면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미얀마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수입 식음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미얀마어 라벨 의무부착) 발표, 유통업(소매) 분야의 외국자본 투자허용 등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 미얀마 곳곳에서 변화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식음료분야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성장을 위한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다양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늘어날 것이다. 아직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았지만,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 중 하나인 만큼 우리 수출업체들도 미얀마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www.theedgemarkets.com en.wikipedia.org